

디트로이트세종학교



세종소식

제 14호

2025-2026년

세종 학교의 새로운 시작들

지난 5월 30일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의 종/졸업식이 있었다.

5학년인 장미반에서 김성협, 최혜서, 박태양 모두 3명의 학생이 초등부 졸업을 하였고, 12학년인 하늘반에서는 최서진, 김세희, 김초연, 윤수은, 하준형 모두 다섯 명이 고등부 졸업을 하였는데, 그 중 두 명은 토끼반부터 14년을 세종학교와 함께 한 학생들이었다.

미국에서의 한국학교는 1970년에 하와이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지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디트로이트 세종학교는 1972년 3월 4일, 뉴욕의 한국학교보다도 1년 앞서 개교를 하였고, 미국 한인사회에서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학교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54년 동안 모두 아홉 분의 교장 선생님을 거쳤고, 작년까지 28년이라는 긴 시간을 세종학교에서 봉사하셨던 김선미 교장 선생님이 타주로 이사를 하시면서, 세종학교는 오랜 기간 개나리반과 음악 선생님이로 근무해 오신 박현우 선생님을 열번 째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로 맞았다.

미시간 한인들의 지원과 격려 속에 발전해온 세종학교는 한글과 역사, 음악, 미술, 태권도, K-pop 댄스, 난타, 사물놀이 등의 교육과 동요대회, 세종 골든벨, 글짓기 대회, 한국어 스펠링비, 이야기 대회 등의 다양한 대회 및 예술제 등의 행사를 통해 미시간 지역의 한인 2, 3세를 위한 뿌리 교육에 최선을 다해 왔다.

지난 2023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 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세종학교에서 계속해서 더 많은 졸업생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20명이 넘는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특히 10분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젊은 박현우 교장 선생님이로 세대교체가 된 세종학교의 미래 역시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

글:이준우



왕과 사는 남자

2026년 2월 4일에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조선의 제6대 국왕 단종과 호장 엄흥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 영화이다. 이 영화의 장항준 감독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유배된 단종의 역사를 감성적인 이야기로 풀어냈다. 영화의 두 주인공, 유해진과 박지훈은 유머러스하지만 슬픈 연기로 왕의 비극적인 마지막 삶을 보여준다. 삶의 의지가 없었던 어린 단종은 유배지에서 보수주인인 엄흥도를 만나 의지하며 새로운 희망과 의미를 찾지만, 결국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된다.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한지 4개월도 안돼서 1680만 관객을 넘기고 한국 영화 누적 관객수 1위를 향해 가고있다. 이 영화가 흥행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유해진, 박지훈, 유지태 등의 연기력 있는 배우들의 출연이다. 수많은 영화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던 유해진은 특유의 노련한 연기로 엄흥도 역을 연기했으며, 실제 20대의 나이지만 10대 어린 왕을 연기했던 박지훈은 이 영화에서 슬픈 단종 연기로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성장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기존 사극과 달리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서 단종과의 교감을 이야기하고 감정을 끌어내 관객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5월 8일에 있었던 제6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 네이버 인기상 등을 수상했으며, 특히 유해진은 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제24회 디렉터스컷 어워즈에서는 영화 부문 새로운 남자배우상과 영화 부문 남자배우상을 박지훈과 유해진이 각각 수상하였다.

글:최성민

방탄소년단 'ARIRANG' (아리랑)

이번 2026년 3월 20일에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 그룹 컴백했습니다. 정규 5집 앨범 《ARIRANG》을 발매했으며 3월 21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컴백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 공연은 넷플릭스 통해 《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 생중계되었으며, 1,800만 명이 넘는 팬들이 보았습니다. 2026년 4월 9일부터 2027년까지 《BTS WORLD TOUR ARIRANG》 월드 투어를 진행하며, 34개 도시에서 총 83회의 공연을 할 것입니다.

아리랑은 한국의 유명한 전통 민요입니다. 한국의 비공식 국가로 여겨지며, 인내, 그리움, 이별, 희망을 의미합니다. 아리랑의 아리는 '아름답다, 곱다', 랑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리랑은 이별의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후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인내를 상징합니다. 아리랑을 부르는 것은 한국의 일제 강점기 (1910-1945)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과 침묵의 저항 상징이 되었습니다.

앨범 제목을 '아리랑'으로 정한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군 활동 후 팬들과 재회한 방탄소년단의 애뜻한 기쁨과 회복력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팬들 아미와의 깨지지 않는 관계를 보여주며, 멤버들의 개인적인 삶과 군 활동 경험에 대한 반영이며 감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앨범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 팬들에게는 군 활동 마치고 돌아온 방탄소년단의 귀환을 알리는 노래였습니다. 팬들과 뿌리를 다시 이어지고 싶어 하는 방탄소년단의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앨범 '아리랑'은 방탄소년단에게 새로운 장의 시작이며, 한국의 문화적 과거를 담아 7인 완전체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앨범은 많은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앨범과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박다연



"No. 29"는 악기 연주와 가사가 없는 곡입니다. 한국의 29번째 국보인 성덕대왕신의 종소리입니다. 종이 울리고 완전히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37초로서 곡 No. 29 이 1분 37초입니다. 앨범 중간에 넣어 에너지 넘치는 곡에서 잔잔한 곡으로 넘어가는 전환이자,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2026년 동계 올림픽

이번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총 10개의 메달을 땀습니다.
그중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습니다.

금메달

최가은: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김길리: 여자 1500m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3000m 쇼트트랙 계주

은메달

최민정: 여자 1500m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황대헌: 남자 1500m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김상겸: 남자 평행대회전
남자 5000m 쇼트트랙 계주

동메달

유승은: 여자 스노보드 빅에어
임종언: 남자 1000m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김길리: 여자 1000m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대한민국!

올해 올림픽에서 한국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청률은 1%까지 떨어졌습니다.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과 FIFA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KBS, SBS, MBC는 올림픽을 방송하지 못했고, 올해는 JTBC에서만 올림픽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스마트폰의 영향이 매우 커지면서 과거의 시청 문화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유진희 교수는 "가족이 TV 앞에 모여 함께 경기를 보고 응원하던 문화는 사라졌고, 한국 문화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예전만큼 올림픽의 문화적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박연서

두쫘쿠

‘두쫘쿠’는 ‘두바이 쫘득 쿠키’의 줄임말입니다. 두바이 쫘득 쿠키는 일본식 찹쌀떡(모찌)과 두바이 초콜릿 바의 조합입니다. 겉은 코코아 가루를 묻힌 찹쌀가루 반죽이고, 속은 가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어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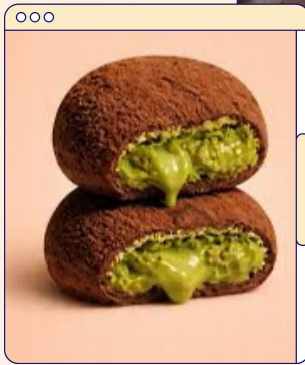
이 쫘깃하면서도 바삭한 식감은 케이팝 아이돌인 장원영(아이브), 나연(트와이스), 유나(있지), 그리고 방지민(이즈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돌들의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두쫘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여러 매장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을 기회로 본 대한적십자사는 겨울철 헌혈 행사에서 두쫘쿠를 보상으로 사용하여 헌혈을 장려했습니다.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첫날 서울에서는 지난주 같은 기간의 308명과 비교해 668명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상황이 더욱 좋았습니다. 하루에 약 1,200명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3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헌혈자 수는 다시 평소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쫘쿠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해당 디저트의 가격도 함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헌혈센터들은 두쫘쿠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쫘쿠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디저트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두쫘쿠를 한번 먹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글:박나연



발행일: 6월 1일
발행인: 박현우 교장
편집인: 박연서
세종소식 기자: 최성민, 이준우,
박연서, 박다연, 박나연

디트로이트세종학교

saejong.org

세종 뉴스레터클럽

